

# 정답과 해설

## 정답과 해설

### 빠른정답

1	④	2	④	3	④	4	①	5	⑤
6	④	7	④	8	⑤	9	③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②	17	③	18		19		20	

### [1~4]

#### 1. 정답: ④

화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에서 일하며 학원 속에 학교를 만든 '한 선생님'을 만났던 일화를 인용했다. 화자는 이 만남을 통해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서술했다. 즉, 특정 인물과의 일화는 자신이 꿈꾸는 교육적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이지,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므로 정반대의 설명이다.

#### [오답풀이]

① 화자는 대학 교직을 그만두던 밤의 망설임과, 과거 제자의 질문에 회피했던 경험을 '부끄러움'이라는 키워드로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성찰은 화자가 왜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런칭 인사말의 핵심)가 되므로 적절하다. ② 지문 후반부에서 화자는 자신을 향해 '이상주의'라고 비아냥대거나 '그 자리에 머물라'며 비난과 견제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을까 봐 '겁나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곧이어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교 선생님이 외면당하고 학원 강사에게만 열광하는 이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학원은 그 순기능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는 자신을 포괄하는 학력, 약력, 경력 등 모든 '레테르'들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강사로서의 세속적 이력(외적 조건)보다 '심찬우'라는 존재 자체와 그가 지향하는 교육적 신념(본질적 가치)을 독자들에게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므로 적절하다.

#### 2. 정답: ④

화자는 "성적 상승에 반드시 도움을 주겠습니다"라고 명시하며, 이것이 학원 강사로서 '당연한 일'이자 '부응해야 할 기대'임을 인정했다. 즉, 인격 교육(진정한 가치)을 위해 성적 향상(도구적 책무)을 경시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강사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완벽히 수행함과 동시에 그 너머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병행의 관점이다. '도구적 책무보다 ~이 중요하다'는 식의 서술은 두 가치 사이의 위계나 선후 관계를 지문과 다르게 설정한 오

류다.

#### [오답 분석]

① 화자는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이의 좌절 앞에 위로 한마디 못 했던 과거를 '부끄러운 어른'이라 고백했다.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후회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라며 사교육 시장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려는 강력한 동기(도덕적 부채감)가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는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오면서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학교냐 학원이나)보다,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실현하느냐가 교육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므로 적절하다. ③ 학력, 약력, 경력 등 강사를 포괄하는 외적 조건(레테르)을 내려놓고 '심찬우'라는 존재 자체로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것은, 세속적 스펙이 주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신념과 실력(진정성)으로 승부하겠다는 단독자적 선언이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는 스스로를 향한 '비아냥'이나 '견제'를 예상하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교육관(본질 추구)이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교육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지배적 논리)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알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이므로 적절하다.

#### 3. 정답 ④

내려놓음을 통해 맞서려 한 건 아니다.

#### [오답 분석]

① 화자는 자신이 목격한 현재의 교육(㉠)을 '실패하는 자는 가차 없이 버려지는 모습'으로 정의했다. 또한 모든 가치가 오직 '입시'라는 하나의 결과로만 수렴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미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가 지향하는 교육(㉡)은 단순히 남을 밝고 일어서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보다 소중한'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에게 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전인적 교육의 과정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지문에서 '별 볼 일 없는 숫자 따위'로 표현된 성적표는 아이의 내면(실존적 세계)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하고 친구들과 등을 돌리게(관계 단절) 만드는 ㉠의 비극적 속성을 잘 짚어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적절하다.

#### 4. 정답 ①

<보기>는 학원 강사가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기능적 책무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를 '레테르(학력, 약력, 경력 등 외적 스펙)를 강조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지문에서의 '레테르'는 화자가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세속적 권위를 의미한다. <보기>의 비판자는 강사가 실질적인 '결과(성적)'를 내지 못하고 말만 번드르르게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강사

의 화려한 스펙(레테르) 자체를 숭상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분석]

② 화자에게 과거의 기억은 단순한 회피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한 학생의 비극적 죽음을 막지 못한 데서 오는 처절한 자기반성이자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동기이다. <보기>가 이를 '변명'으로 일축하는 것은 화자의 진정성 있는 내적 고뇌를 단순한 수사로 오해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화자는 교육을 통해 '나만큼 소중한 너'를 깨닫는 가치 실현을 중시하지만, <보기>는 학원을 오직 성적이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서비스 공간으로만 정의한다. 이는 교육이 지닌 전인적 성장이라는 본질을 배제한 채 '도구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태도이므로 화자의 입장에서 비판 가능한 지점이다. ④ 화자는 지문에서 "성적 상승에 반드시 도움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보기>는 화자가 인격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성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 의심하지만, 이는 강사로서의 기본 책무와 교육자로서의 이상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단편적으로 해석한 오해이다. ⑤ 화자는 학교와 학원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 전반의 입시 위주 교육 문화를 바꾸고 싶어 한다. 반면 <보기>는 강사의 역할을 개인의 성적 관리에만 가두려 한다. 이는 교육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5~10]

5. 정답: ⑤

세 지문 모두 객관적인 '숫자'를 활용해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나)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거짓 행동을 한 인물을 조롱한다. 그러나 (다)는 시스템 안에서 좌절하는 개인의 고뇌에 집중할 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 자체를 주제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통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에서 '썸수학황'을 향한 냉소적 어조(병신 ㅋㅋ)가 나타나지만, (가)는 매우 진지하고 온정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다)의 냉소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지, 이를 통해 윤리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구조는 아니다. ④ (나)에서 실력 없는 자에게 '수학황'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을 방어적이라 볼 순 있으나, (가)와 (다)는 화자의 진솔한 고백과 직설적인 비판(비속어 포함)이 주를 이룬다. 방어법이 세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서술 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에선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닌 썸수학황이 처한 현실이다.

6. 정답 : ④

주변 사람들은 화자를 '패션 거지'라고 놀리며 차를 바꾸거나 옷을 사라고 조언(비판)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수용하여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

신의 신념에 따른 소비가 더 타당하다고 믿으며 기존의 행위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개선 의지'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문에서 화자는 시급 7,000원을 두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금액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노동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는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이유를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사회 구조적 불합리로 인해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인적인 윤리적 부채감을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주변에서 옷이나 차를 바꾸라는 소리를 들어도 화자는 자신을 꾸미는 것보다 '더 필요한 곳(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 등)에 돈이 쓰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비 우선순위를 '자아 치장'이 아닌 '사회적 실천'에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지문 후반부에 '제 형편이 좀 더 여유로울 때는 10만 원을 주기도 합니다'라는 대목이 나타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추가 지급액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정답: ④

인물은 답지를 외워 '퍼포먼스'를 했을 뿐, 그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하지 않았다. 정보를 내면화했다면 중간고사에서 4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을 리 없다. 47점이라는 결과는 인물이 학습 내용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므로 '내면화하였으나'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은 실제로 문제를 고민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답지를 외워놓고 남들이 보기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그라미'를 치는 등 이미지 연출에 몰두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고민하는 과정(학습의 본질)을 생략한 채, 정답을 맞췄다는 결과(동그라미)를 요란하게 보여준 행위는 전형적인 인정 욕구 기반의 퍼포먼스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1번 선지와 내용이 동일하게 중복되어 있다. (나) 지문의 인물이 보여준 핵심적인 문제점이 '허구적 이미지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수학황'이라는 허구적 자아는 중간고사라는 실제 평가(47점)를 통해 실체가 탄로 났다. 이로 인해 주변 친구들에게 '병신'이라 조롱받으며 '왕따'가 되었으므로, 기만적 행위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8. 정답: ⑤

둘다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답지를 외워 공부를 잘하는 척하는 '썸수학황'을 조롱한다. <보기>의 '담요단 A' 역시 실제 공부보다 공스타

업로드 등 외적으로 보여지는 세팅에 집중하는 인물이므로, 두 대상 모두 '보여주기식 공부'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나)의 화자는 '47점'이라는 구체적인 점수를 언급하며 대상을 조롱했다. <보기> 또한 '1~2시간', '1시간' 등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여 담요단 A가 본질(공부)보다 주변부(세팅)에 쏟는 비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췌수학황'(나)과 '담요단 A'(<보기>) 모두 자신의 허구적 이미지를 외부로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본질적 공통점을 지닌다. 한 명은 '실력'을, 한 명은 '열공하는 분위기'를 과시할 뿐, '달리'라는 대조적 서술을 쓸 수 없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④ '췌수학황'은 남들이 보라는 듯이 채점을 하고, '담요단 A'는 공스타에 사진을 찍어 올리며 반응을 살핀다. 두 인물 모두 학습의 내실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③

'태양'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운명, 재능)을, '맨손'은 지극히 유한한 주체의 수단(노력)을 상징한다. 화자는 자신의 치열했던 수험 생활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매달린 '맹목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회의를 이 비유를 통해 고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강사들을 비난(외부 탓)하면서도, 동시에 '제 노력이 부족했겠죠?', '난 노력하지 않은 주제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자기 성찰과 자책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왜곡하는 것이다. ② 해당 질문은 화자의 내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학능력(재능)'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의구심 속에서 권위자에게 얻고 싶은 '절박한 위로'에 가깝다. 확신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 붕괴되는 자아를 지탱하기 위해 타인에게 확답을 구걸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④ 지문의 화자는 사수까지 실패하고 수험 생활을 정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글을 쓰고 있으므로 '수험생 시절'이라는 과거 한정적 시점은 부적절하다. 둘째, 화자는 시스템의 모순을 지성적으로 '응시'하기보다, 그 정보량에 압도되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한 현실에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문학적 함정으로 자주 쓰이는 '성숙', '지평 확장'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활용했다. 화자는 별(이상)과 밭(비참한 현실)의 분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며 절망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루거나 현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립된 자아의 비극성이 강조된다.

10. 정답: ⑤

'지문에서 '어두운 새벽'과 '비포장도로'는 화자가 처한 막막한 수험 생활의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재 상황을 상징하는 배경이다. 화자는 여전히 강사들에게 길을 묻고 있으며, "제 밭 노력이 맞다고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는 정형화된 방법론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기보다, 그 방법론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

구하고 길을 잃고 어둠 속에 고립된 자아의 비극적 처지를 드러낸다.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강조한 것이지, 방법론에 대한 집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자신의 '노력'이라는 삶의 근거가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에 권위자인 강사들에게 긍정적인 답을 요구함으로써, 닦쳐온 절망적 진실(실존적 위기)을 잠시나마 뒤로 미루고(유예) 안식을 얻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태양은 뜨거워 맨손으로 잡을 수 없는 대상(본질적 속성)이다. 화자가 자신의 노력을 이에 비유한 것은, 수능 국어라는 시스템이나 자신의 재능 한계가 '노력'이라는 주체적 수단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었음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수능 국어 지문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화자는 삶에 실질적 의미를 주지 못하는 파편적 지식(도구적 성격)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으나 실패했기에, 그 지식의 무가치함을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언급한 '피투성(Thrownness)'과 연결된다. 하늘에 박힌 별(이상)과 땅에 묶인 밭(비참한 현실)의 물리적 대비는,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극복할 수 없는 세계의 한계와 고립감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적절하다.

[11~14]

11. 정답: ③

화자는 수험 생활 동안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지속했다. 지문에는 부모님께 울며 말한 상황이나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언급될 뿐, 타인과의 구체적인 대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된 부분은 없다. 화자의 내적 갈등 해소는 대화가 아닌 스스로의 독백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채수(강대 의대관)에서 시작하여 학교반수(연대 공대 합격), 그리고 사수(시대인재)와 수능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의대에 대한 집착이 점차 자신에 대한 성찰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지문 전반부에는 '했다', '같아'와 같은 평어체를 사용하다가, 후반부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나 마무리 인사에서는 '감사했습니다', '축하해' 등의 구어체(경어체 및 대화체)를 혼용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는 형식적 특성과 화자의 감정적 호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므로 적절하다. ④ 자신의 욕심을 '주식이나 코인'에 비유하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을 '모자란 그릇'에 비유했다. 또한 스스로를 '매질한다'는 비유를 통해 목표를 위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수험 생활의 고단함을 강조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글의 후반부에서 '이 글을 본다면', '만약 여기까지 읽어준 사람이 있다면' 등 독자나 특정 인물(선생님)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미래의 다짐을 선언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④

화자는 수험 생활 동안 자신을 돌봐준 선생님에게 '엄마같이 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라고 직접적인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지문 내에서 '\*\*'과거에는 감사를 느끼지 못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화자는 단지 과거에 '남이 잘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준 적이 없었다(이기심)'고 고백했을 뿐,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립된 수험 생활 중에도 선생님의 호의를 감사히 여겼던 마음은 수험 기간 내내(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감정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라는 대비적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사설 모의고사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당일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한 원인을 '스스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모자란 그릇'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를 억누르고 나를 매질하면서 공부했기에, 오히려 낮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서술했다. 최선을 다한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에 승복(졌지만 잘 싸웠다)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화자는 수능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외모, 피부, 20대 초반의 다양한 경험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온 시간을 '허탈하고 씩씩해'라고 표현했다. 이는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에 대한 슬픈 탄식, 즉 한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나를 사랑하며 살려고 한다'며 입시를 끝내려 하면서도, 바로 뒷부분에서 '아직 미련을 다 떨쳐내지 못해서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수능을 응시할 지도 모르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완벽하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13. 정답: ②

화자는 ㉠(재수)에서 재수 실패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의대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었다'고 서술했다. 즉 이는 의대에 대한 열망이 ㉠시기에도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시기에만 의대를 준비했다는 식의 '㉠과 달리'라는 비교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재수) 시기에 화자는 '남들과 벌어진 격차를 줄이려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반면 ㉡(사수) 시기에는 이미 연세대 공대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였으며,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혹은 '안주하지 않고 더 잘하자'는 고집 지향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두 시기의 노력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학교반수) 시기에 화자는 '부모님한테는 이제 그만한다고 대학 다니겠다고 하고 나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며 비밀리에 공부했다. 그러나 ㉡(사수) 시기에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울면서 허락을 구하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지원해 주셨다'고 서술했다. 두 시기의 정보 공유 여

부가 상반되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는 수험 생활 전체를 돌아보며 '나를 억누르고 나를 매질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허탈하고 씩씩해'라고 회고했다. ㉢(학교반수)의 독학 시기나 ㉡(사수)의 재종반 시기 모두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며 공부했음이 지문 전반에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⑤ ㉢(학교반수) 시기에는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대치동 현강도 등록해서 다녀보고'라고 서술했으며, ㉡(사수) 시기에는 '시대인재 재종 처음 개강할 때부터 바로 등록해서 다녔어'라고 명시했다. 두 시기 모두 학원 시스템을 이용했으므로 적절하다.

14. 정답: ③

이전에도 감사함은 계속 느껴왔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겨진다'고 한 것처럼, 본문의 화자 역시 자신의 수험 생활을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지니게 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치열했던 과정 자체가 화자에게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는 서울대학교 합격 수기로 목표를 달성한 사례인 반면, 본문의 화자는 사수 끝에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두 화자 모두 '단 한 번도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본 적 없었다'거나 '매질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표현을 통해 극한의 인내를 거쳤음을 보여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필자는 합격이라는 성과를 통해 과거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했으나, 본문의 화자는 사수 수능에서 평소 실력보다 낮은 성적을 받아 연세대 공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두 인물의 최종적인 성취 여부 차이를 정확히 짚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는 '남모르게 혼자 삭혀야 했던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언급했고, 본문의 화자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 '나를 사랑하지 못한 시간'을 언급했다. 두 화자 모두 수험 기간을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아닌, 고통과 비참함을 견뎌야 했던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5~17]

15. 정답: ③

지문에서 '안 그렇죠?'라는 의문의 표현이 사용된 대상은 '아빠'의 속마음을 짐작할 때뿐이다. '엄마'의 기쁜 심정은 '오열하더라'라는 직설적인 서술을 통해 제시되었을 뿐, 의문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 대상과 수단이 불일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배 뱉뱉 굶다', '틀니 떨구고 자빠짐' 등 일상적이지 않은 과격하고 과장된 묘사를 통해 합격 직후 화자가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화자는 '설날에 수금 들어간다'며 미래의 행위를 가정하고 있다. 이는 합격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친척들에게 경제적 보상(용돈)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전망)를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집에 누워 배 뱉뱉 굶던' 초라한 이전의 일상과 '성균관대 최

초합'이라는 화려한 현재의 사건을 대비시켰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합격의 쾌감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이제 뛰지 않는다 나는 양반이니까'라는 표현은 합격 후의 여유와 자부심을 '양반'이라는 단어에 빗대어 과장한 것이다. 수험생 신분에서 벗어나 기세등등해진 화자의 심리 변화가 잘 나타난다. 따라서 적절하다.

16. 정답: ②

㉠은 화자에게 '잘됐네'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축하를 건넸다. 선지에서 '보인 반응과 달리 축하한다'고 서술하려면, 겉으로는 축하하지 않는 척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빠는 이미 말로 축하를 표현했으므로, 반응과 실제 마음이 '다르다'고 단정 짓는 이 설명은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오답 풀이]

① 화자의 합격 소식을 듣고 '몰카 하지 말라'고 반응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아빠)은 절제된 언어('잘됐네')로 반응한 반면, ㉡(할배)은 틀니를 떨구고 자빠지는 등 신체적이고 파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인물의 반응 강도 차이가 명확하므로 적절하다. ④ ㉢(친척들)은 축하 전화를 통해 화자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주었으며, 화자는 이를 근거로 설날 '수금'이라는 경제적 기대를 품게 된다. 화자의 입장에서 기대를 갖게 만드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⑤ ㉣~㉤은 화자의 성취를 기뻐해 주는 긍정적 대상들이나, ㉥은 화자가 '병신새끼'라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대상이다. 평가의 방향성이 정반대이므로 적절하다.

17. 정답: ③

<보기>에서 '시스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성적과 대학 순위에서 벗어난 성숙한 성인의 출발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의 화자가 산책로에서 뛰지 않고 '양반'처럼 걷는 이유는 대학 합격이라는 시스템 내부의 보상을 획득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출발, 즉 새로운 시작에 대한 행복이라고 유추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불응'은 등급으로 줄 세워지는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태도를 의미한다. (가)의 화자는 '성균관대 최초합'이라는 대학 서열 시스템의 승리자로서 기뻐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양반'이라 칭하며 그 시스템의 권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에 '불응'하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② 화자는 이미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으므로 입시 체제(의무적 순응)에서 벗어난 상태다. 또한 3달 만에 밖으로 나와 산책하는 등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으므로 '해방되지 못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화자가 우는 실질적인 이유는 '공부 좇도 안하고 디시랑 유튜브만 보다가' 느낀 자괴감 때문이다. 이는 <보기>가 말하는 '시스템에 대한 중압감'이나 '가치 있는 불응'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시스템 내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에 가깝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화자는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어 '양반' 운운하며 기존 서열 시스템에

철저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나)의 화자는 재수생으로서 아직까지 시스템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